

# 목포시, 친환경선박 연료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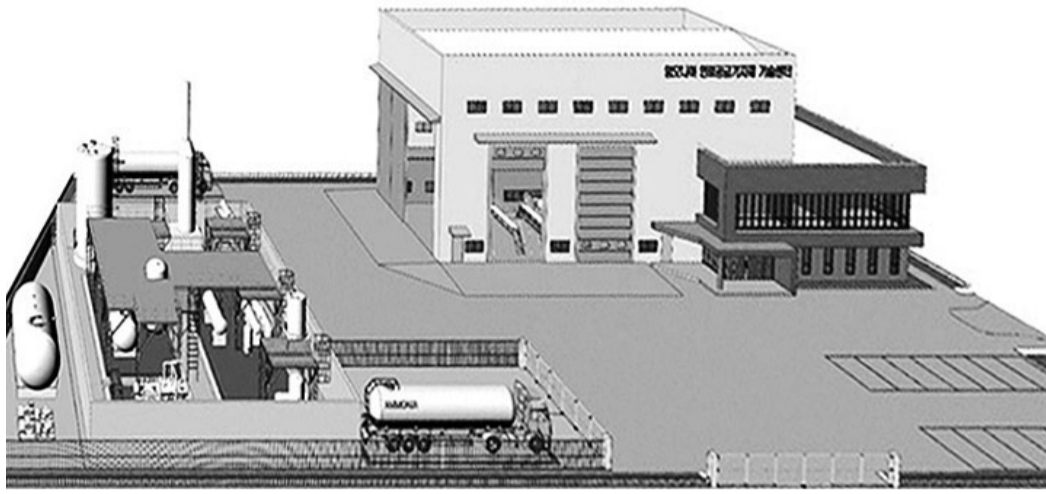
### 산자부 공모 선정 국비 100억 확보 200억원 투입 대양산단에 조성 차세대 연료 암모니아 공급 기술개발

목포시가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핵심기술분야 신산업 창출·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목포시가 선정된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은 5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목포시는 글로벌 조선-해운업계의 친환경연료 전환추세가 가속화되고 Post-LNG 전락 마려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차세대 선박연료



친환경 무탄소 암모니아 선박 실증센터 조감도.

공급망 구축·기저재 국산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에 따른 연관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목포 대양산단에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저재·부품에 대한 평가기반 확보와 성능평가 인증체계를 마련해 미래 친환경선박 시스템 기술선도·시장주

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관으로 방재시험연구원, (재)전남테크노파크, 목포시, 전남도가 공동참여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 확보로 염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보급·확산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지하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산업을 재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남방을 중심으로 친환경선박 분야의 연구·실증·교육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 지역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실있는 성과가 창출돼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건축공간연구원과 한옥 문화 활용 업무협약



우승희(왼쪽) 영암군수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영암군이 한옥 문화를 활용해 도시 공간을 활성화한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과 '영암군 한옥 문화 발전과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한옥 등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딩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한옥 관련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과 보존·관리를 위한 자문 활동도 보인다. 건축자산의 유류 공간에 대해서는 재생·활용을 위한 연구·정책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개발을 하고, 한옥·건축자산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 공공건축과 한옥 문화자원 활용, 도시 공간 재배치, 문화자산 활용 유희공간 재생사업 등 영암군 도시 공간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건축공간연구원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 서울 무지개 나눔장터 참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무안군이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서울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5월 무지개 나눔장터'에 참가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물'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무지개 나눔장터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해 수도권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다.

군은 쌀, 양파, 잡곡류 등 우수한 지역 먹거리를 알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개설한 '맛플무안물'을 알리는 회원가입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지난 4월 개장한 '맛플무안물'은 오픈 기념·햇양파·가정의 달 이벤트 등 SNS 홍보를 비롯해 읍·면민의 날, 어린이 큰잔치,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맛플무안물'에서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황토랑쌀' 20% 할인 ▲전 품목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사다리 타기 랜덤 쿠폰 발급 ▲리뷰 작성 시 적립금 지급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우리 지역 우수한 먹거리를 수도권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맛플무안물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재난의료 신속대응반이 목포한국병원 강사 5명을 초청해 역량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보건의료원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 훈련

### 전문강사 초청 이론 교육·실습

완도군 보건의료원이 최근 38명의 '재난의료 신속대응반'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훈련은 전남 서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 강사 5명을 초청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재난 응급 의료 대응 체계와 환자 분

류반의 역할·중증도 분류, 처치반·이송반 역할 이론교육,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응급 의료 대응 도상 훈련 등을 했다. 완도군 재난의료 신속대응반은 재난 때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해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물자 등 의료 자원을 동원, 신속하게 응급 의료에 대응한다.

신속대응반은 보건의료원장을 중심으로 4개 조로 꾸려졌다.

보건의료원은 모바일 대화방을 통해 담당별 역할을 인지하고 불시 모의훈련과 관계기관 합동 재난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한광일 완도군보건의료원장은 "재난 대응 응급 의료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 역량 교육·현장 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